

해방기 동인지 『죽순』 연구

강 호 정*

차 례

1. 들어가며
2. 『죽순』의 시론과 ‘순수’의 의미
3. 『죽순』의 시와 서정시의 보루로서의 역할
4. 『죽순』의 지역성과 향토문학운동
5. 『죽순』의 의미와 한계

국문초록

이 글은 『죽순』의 시론과 시를 통하여 해방기에 있어서 『죽순』의 시 세계를 고찰하고, 대구라는 지역성의 발현으로서 『죽순』의 역할 그리고 『죽순』의 한계와 현재적 의의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해방기 최초의 동인지 『죽순』은 ‘죽순시인구락부’를 발행인으로 하여 1946년 5월 1일자로 대구에서 처음 발간되었다. 이후 1949년 7월 11집으로 종간할 때까지 임시증간호를 포함 총 12집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발행인은 ‘죽순시인구락부’로 되어 있어서 클럽(Club)으로서의 동인의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경제적 후원, 편집, 발송 등)은 시인 이윤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 1979년 30년 만에 다시 복간하여

* 한성대학교 교수

현재에도 간행되고 있다.

해방기에 있어서 『죽순』의 등장은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1. 동인지로 출발하여 순수문예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고 했다는 점. 2. 문학사에 등장하는 유명 시인들을 포섭하고 있으나 그것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점. 3. 시조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4.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동인지로서 '향토문학운동'의 선봉에 서 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죽순』과 '조선청년문학가협회'와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죽순』에 수록된 시론을 통하여 『죽순』 동인들의 동인의식을 살펴보고, 그 시론에 입각하여 동인들의 시를 살펴보고자 했다. 『죽순』에 작품을 수록하였지만, 동인의식의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김춘수, 유치환 등 유명 시인들보다도 순수하게 『죽순』 동인으로서 열정을 보인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제어 : 『죽순』, 대구, 로컬리티, 문학동인지, 해방기, 죽순구락부

1.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대구 지역에서 발간된 시 전문 동인지 『죽순』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간행된 시동인지는, 『동백』(1946. 동백동인회, 충남대전), 『등불』(1946. 진주시인협회, 경남진주), 『시탑』(1946. 서울, 시탑동인회), 『죽순』(1946. 경북대구, 죽순시인구락부), 『낭만파』(1946. 마산), 『오동』(1947. 경북김천, 오동시문학구락부), 『청포도』(1947. 경기 안양, 안양문학동인회), 『신시론』(1948. 서울, 신시론동인회), 『형상』(1949. 서울, 형상동인회), 『시문학』(1950. 인천, 시문학동인회)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일부라도 확인 가능한 동인지는 『시탑』, 『죽순』, 『낭만파』, 『신시론』, 『형상』, 『시문학』 정도이다. 이들 중 『죽순』이 대구에서, 『낭만파』가 마산에서 출간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에서 출간되었다. 해방기 시전문 동인지로 지역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동인지로 『죽순』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특히 해방기의 서정시를 논함에 있어서 해방기 『죽순』의 역할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전 동인지는 만만치 않은 부침을 겪어 왔다. 흔히 최초의 동인지라 일컫는 『창조』 이후 1920년대 초반에 동인지가 활성화되었다면, 카프의 구성 무렵인 1924년 후반 이후 1930년대 초반까지는 다소 위축된다.¹⁾ 이후 1930년대 후반, 카프의 해산과 더불어 문단에 새로운 힘들이 돌출하기 시작하는데 ‘동인지의 簇出’이라고 할 만큼 많은 동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습격 이후 동인지 활동은 다소 뜸해 졌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동인지는 시기별로 극심한 부침을 겪어왔고, 해방이 하나의 기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이 되자 출판문화도 활성화되는데, 그 가운데 문예지의 출간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방기 『죽순』이 탄생하게 된다. 『죽순』이 주목을 끄는 것은 해방기 최초의 동인지라는 점,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핵심적인 동인지라는 점, 해방기에 순수시의 가치를 고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죽순』 창간호는 ‘죽순시인구락부’를 발행인으로 하여 1946년 5월 1일자로 대구에서 발간되었다. 이후 1949년 7월 11집으로 중간할 때까지 임시중간호를 포함 총 12집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발행인은 ‘죽순시인구락부’로 되어 있어서 클럽(Club)으로서의 동인의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

1) 다음 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1924년을 기점으로 동인지 초기의 활력이 쇠퇴하면서 각종의 동인들이 폐간되었고, 광범위한 계몽적 대중 종합지 『개벽』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노동 운동이나 프로문학 논의가 활성화된다” 차혜영, 『1920년대 동인지 문학운동과 미 이데올로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216쪽.

지만, 실질적인 것(경제적 후원, 편집, 발송 등)은 시인 이윤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윤수의 기록에 따르면, 1945년 10월 대구지역에서 한 문학단체가 발족되었고, 이윤수는 그 단체의 시분과위원장에 선출되었으나, 그 단체 자체는 얼마 후 활동을 중지하게 된다. 이에 이윤수는 詩部회원 들끼리 따로 만나게 되었고, 독립된 새로운 詩人會를 결성하기로 하는데, 이 모임이 『죽순』의 모태가 된다. 이 죽순회를 토대로 수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946년 5월 해방기의 『詩同人誌』로서는 전국 처음²⁾이었던 『죽순』이 발간되었다.³⁾

『죽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아직 일천한데, 선행연구자인 송영목은 그 이유로 자료수집의 난관과 지방문학의 홀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죽순문학회의 노력으로 『죽순』 영인본(2004)이 간행되었으며, 이제 지방이라는 이유로 홀대하는 시기는 지났다. 오히려 한국문학 전체의 지형도를 위해 지방이 지니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군소작가에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지고 있다.

『죽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해방기 죽순 지의 시세계』(송영목)⁴⁾와 영남문단의 결속과 진단을 위한 예증으로 『죽순』을 동원하고 있는 『해방기 시론 연구』⁵⁾(박민규) 정도에 그친다. 그리고 현재의 『죽순』 동인들

2) 이윤수, 『광복 30년 경북문단점철』, 『죽순』 복간호, 1979, 194쪽. 이 무렵 마산에서는 『낭만파』가 간행되었다. 『낭만파』는 1946년 마산에서 김춘수, 조향, 김수돈 등이 동인을 결성하고 간행한 동인지이다. 그동안 『낭만파』 1,2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순욱의 연구에 따르면 『낭만파』 2집은 1946년 6월 1일에 간행되었고, 여전히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낭만파』 1집은 1946년 1월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에 대한 이윤수의 기억은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이순욱, 『광복기 경남 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제43집, 한국비평문학회, 2012, 189~226쪽 참조.

3) 이 논문은 월간 문예잡지 『유심』(2014년 8월호)에 실린 『죽순』에 대한 소개 글을 전면 개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4) 송영목, 『해방기 죽순 지의 시세계』, 『비평문학』 7호, 한국비평문학회, 1993.

5) 박민규, 『해방기 시론 연구』, 고려대학교학원 박사논문, 2012.

에 대한 향수어린 글들이 주를 이룬다. 송영목의 논문은 『죽순』의 개략을 소개하고, 『죽순』지에 시를 수록한 시인 중에서 이운수,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유치환, 이응창, 김달진, 김춘수, 천상병 등의 시를 일별하고 있다. 이들은 『죽순』지에 시를 수록한 시인들 중에서 한국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유명 시인들에 속하는데, 이것이 문제적인 것은 이들 유명 시인에게 과연 『죽순』의 동인으로서 연대의식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유명 문인들이어서 『죽순』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기에 동원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죽순』을 돌아보는 회고류의 글에서도 이들 유명 시인들의 이름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죽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외의 『죽순』 동인들에게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문제 의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박민규의 논문은 애초에 『죽순』지의 전모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남문단에서의 『죽순』의 위상에 대한 것을 살피고 있다. 마산, 진주문단과의 관계 그리고 영남문단과 중앙문단의 관계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정밀한 논증을 보여주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죽순』의 일부분에 대한 언급임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죽순』의 시와 시론을 망라하여 해방기에 있어서 『죽순』의 시세계와 동인들의 시적 지향점을 파악하고, 대구 지역에서의 지역성의 의미와 그것의 한계 및 현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죽순』의 시론과 ‘순수’의 의미

이미 알다시피 해방기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좌/우의 대립으로 점철된 시기이다.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극심했다. 문학계에서도 조선 문학가동맹을 축으로 좌파의 활동이 극심했다면 우파에서는 김동리, 조

연현, 서정주, 조지훈이 나선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이하 청문협으로 칭함)를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펴 나갔다. 해방기의 문단 상황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그것은 각 정파의 헤게모니 쟁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좌익의 적극적인 문학적 행보에 우익 측도 대응을 하는데 이들의 문학운동은 헤게모니 쟁투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대타적 의미는 물론 문학이 정치에 종속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에서 촉발되었다.

『죽순』은 대구지역에서 창간한 자생적 동인지이지만, 우익의 문학 단체인 청문협과 무관치 않으며, 『죽순』 역시 우익의 논리를 따라 순수문학을 내세운 동인지로 자리매김한다. 청문협은 순수문학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순수문학을 내세웠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문학의 정치적 행보를 보여준 좌파의 논리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이미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순』은 비교적 정치적 목소리를 배제하려고 애를 쓰면서 시적 ‘순수’를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발행인인 이윤수가 ‘藝術의 目的은 純粹한 觀照에 의한 특수한 感動 즉 美를 探究 하는 데 있다’고 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치성이 배제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수에 대한 추구가 『죽순』 동인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동인지의 동인의식을 살펴보기에는 시보다는 산문에서 찾는 것이 유용하다. 『죽순』에 수록된 산문 중에서 그들의 시적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론이라고 할 만 한 것이 많은 것은 아니다. 『죽순』 2집에 실린 이윤수의 「시의 진실성」과 3집에 실린 김동사의 「민족의식과 문학」, 이호우의 「시조의 본질」, 이윤수의 「시인과 시에 관하여」, 제4집에 실린 이윤수의 「하나의 에피로-구」, 김동사의 「진위의 시와 비」, 제7집에 실린 조연현의 「시에 관한 노트 -시론을 위한 소재 3제」, 제10집에 실린 한술의 「시」, 김동사의 「문학과 생활과 인간(수상)」, 김춘수의 「시, 시인에 대한 소묘」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밖에 산문으로는, 제6집에 실린 조향의 「역사의 창조」 등이 있다.

우선, 동인지가 내세우는 기치는 대체로 창간호의 발간사나 편집후기에서 읽을 수 있는데, 『죽순』 편집후기에 나타난 이들의 동기는 한마디로 열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눈이불 뚫고 어린 竹筍하나 뽀족히 王대의 꿈을안고 오래인 부르지 못한 노래를 하늘이 베푼 이땅의 해방과 함께 힘차게 불러볼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죽순 이다.

꽃핀 산넘어 어매 찾는 송아지 우름 흘러오는데 미거한 竹筍을 출산 하기됨는 感無量이다.

大膽한 일이기때에 주재념있고 그얼마나 주저도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그만 가슴에 타는 모닥불은 꺼지지 않은 불이라 文學藝術의 한 조각인 詩文學의 烽火가 될가하노니 詩는 文學의 最初이고 最後에 것인 만큼 우리들은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자라 다만 文學藝術로서 이땅에 이바지되고자함은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다.

‘왕대의 꿈을 안고’, ‘오래인 부르지 못한 노래’, ‘가슴에 타는 모닥불’ 등의 표현은 『죽순』을 창간함에 있어서 이들의 들뜬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해방과 함께 오래도록 ‘부르지 못한 노래’를 불러보는 것, ‘시문학의 봉화’가 되는 것이 그들이 드러낸 열정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시를 ‘문학의 최초이고 최후’라고 하는 것도 예술로서 시의 순수에 대한 다른 이름이며 예술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론이나 평문을 쓴 문인 중에서 이윤수와 김동사는 『죽순』의 핵심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글이 『죽순』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글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진실, 영원성, 민족으로 집약된다.

오죽 眞實만이 詩人の 最重의 寶物이다. 眞實은 詩人の 魔術의 箱子라 이 箱子를 잘 操縱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自己의 뜻대로 할 수 있

다. 말하자면 詩에 있어 어떤 巧妙한 技巧과 修辭와 新樣式을 가추고 있을지라도 眞實의 缺陷이 있다면 그 詩는 아름다운 노리개나 혹은 骨董品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그러면 眞實이란 어떠한 것인가? 眞實에서 나온 詩는 어떠한 것인가?

단일한 技巧의 붓끝으로 쓴 詩 아름다운 言語와 文字를 가지고 視覺을 魔醉할 수는 있을지라도 아무런 生命도 힘도 없는 眞實이 缺陷한 詩는 흠으로 만든 人形이나 造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自己의 眞實한 기쁨 自己의 眞實한 苦悶 自己의 眞實의 感情을 노래 부른 것이라면 아름다운 言語를 쓰지 않고 技巧에 加等의 妙味가 없더라도 깊이 사람의 心情을 動하게 할 수 있고 長期間 그 感은 잊어지지 않을 것이다.⁶⁾

이운수가 말하는 시의 진실은 대체로 부정의 방식으로 정의된다. “단일한 技巧의 붓끝으로 쓴 詩”는 안 된다는 것, “아름다운 言語와 文字를 가지고 視覺을 魔醉”하는 시도 아니라는 것, “아무런 生命도 힘도 없는” 시도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한 기교를 부리지 않는 생명과 힘이 넘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진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이운수가 말하는 ‘진실에서 나온 시’가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인용문에 이어 진실한 시의 사례로 김광균의 『은수저』를 예로 들고 있어서 진실한 시의 대략을 짐작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경험에서 배태된 생의 고뇌가 담긴 시가 진실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실의 개념은 다음 인용문에 보이는 김동사의 글에도 이어진다.

1) 眞은 곧 民族性을 鼓吹함과 同時 詩의 本質인 藝術性을 土臺로 純粹詩에서 出發하여 民族詩를 樹立하는 것이오, 僞는 時流의 波動 속에서 激流에 이끌리어 民族性을 喪失하고 無批判的 主義 思想의 走구化하는 部類의 存在이다. 이것은 詩의 不幸이 아닐 수 없으나 또한 剛健한 民族文學樹立에 있어서는 好試練이라 할 수 있다.

2) 詩人의 地位는 永遠하다. 그는 가장 時代精神에 敏感하다. 그러나

6) 이운수, 『시의 진실성』, 『죽순』 2집, 1946.8, 28쪽.

그 時代의 潮流 속에서 허덕이지 않는다. 眞正한 詩人은 그 時代에서 超越하여 存在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時代에 土臺를 가지고 있으며 民族 위에 서서 前進한다. 個性的 傾向을 排擊하고 自由로운 蒼空에서 民族 永遠의 將來를 위해 앞잡이가 되어 푸른 하늘 높이 높이 날 것이다.⁷⁾

이윤수와 김동사의 글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데, 한 사람의 다른 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의 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죽순』 동인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공통된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시의 본질을 예술로 본 것이 그러하고 모든 것이 순수시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진실(眞은) 민족성을 고취하고 시의 본질인 예술성을 토대로 순수시를 추구하는 것이고, 거짓(僞)은 민족성을 상실하고 시류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인용문 2)에서도 시인의 지위를 말하면서 영원성을 말하는데, 이 때의 영원성이라는 것도 시대의 조류에 허덕이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시인은 ‘시대에 민감’하면서도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에둘러 말하기의 핵심은 ‘시대의 조류에 허덕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시대의 조류는 물론 해방기의 문단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해방 직후에 발간된 『해방기념시집』(중앙문화협회, 1945.12)이나 『햇불:해방 기념13인집』(우리문학사, 1946.4) 등은 해방 직후의 감격을 직설적으로 토로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해방 직후 흥분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정치시, 투쟁의 시가 등장한다. 시적 실천을 위한 투사로서의 시인의 모습을 요구하던 때가 해방기이기도 했다. 이것이 곧 시류이기도 했다. 그러나 죽순의 문학은 이 시류와 무관하게 순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永遠한 詩 ... 時代의 힘에도 其他 모-든 힘에도 變化되지 않은 永遠한 詩 이러한 詩의 思想이 確立된 곳에서 詩가 가진 긴 傳統의 沃土가

7) 김동사, 『眞僞의 是와 非』, 『죽순』 4집, 1947.5, 37쪽.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永遠한 詩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詩의 永遠性만은 數世紀를 老朽하지 않고 새로운 샘물같이 쉼 새 없이 살아있는 한 機能이라고 본다. 이 永遠性은 모-든 것이 進化하는 데 있어 스스로 타는 피로서 生存하고 있다. 卽 우리들의 創造의 根源인 精神과 마음 情熱과 理性이 불타는 속에서 그 힘은 燦然히 存在하고 있을 것이다. 詩人은 人間性을 가지고 孤獨함에 있어 生の 眞理와 眞實을 探索하며 民族에 대한 意識의 피가 숨 쉬고 있어야만 된다. 이러한데 있어 現實을 把握하며 現實을 지나치는 모-든 것을 把握하는 것 이것이 詩人의 最高인 神祕한 課業이라 할 수 있다.⁸⁾

영원성은 시대의 힘에도 변화하지 않는 것, 스스로 타는 피로써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다소 추상적인데, 결국은 이 역시 ‘진실’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조류에도 변치 않는 그 무엇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순수시로서의 예술성을 견지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시류나 민족의 개념은 비교적 흐릿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향의 글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운수나 김동사의 글이 다소 피상적으로 읽힌다면, 조향의 글은 그들이 피해가고 있는 부분, 즉 민족이나 시류에 대해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숙명에서 오는 두 세력의 물결이 쳐 들을때마다 事大 拜外 사상으로 흘러 가는 일파와 피를 흘리드라도 自主의 길을 걸겠노라고 아우성치는 일파가 나누어 있어지는 것이었다. 앞엿것은 時流에 迎奉하는 俗性이요 뒤엿 것은 이르는 바 純粹에 속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흐름은 어느 때에나 이 純粹와 俗性的의 鬭爭史인 것이다.

앞에서 나는 民族이라는 말을 써 왔으나 이것은 信託統治를 支持해야 한답시고 狂奔하는 民主主義民族戰線 系列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예측적인 민족의 定義로서 쓰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다.

8) 이운수, 『詩人과 詩에 關하여』, 『죽순』 3집, 1946.12, 27쪽.

이 系列에서 쓰는 民族의 定義는 大쑈베-트 聯邦朝鮮人民共和國이란 지극히 길고 거룩할 이름이 지어졌을 적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곧 大쑈베-트聯邦 안에 포함 (아니 예속이다)되어 있는 조그만한 조선이라는 民族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략)

그 系列에서 定義하는 民主主義도 억설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民主의 民은 農民과 勞動人民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다위 치우친 定義를 붙여 가지고도 내로라고 떠드는 모양이 꽤 불만하다.⁹⁾

조향의 글에 이르러서 민족과 시류의 개념이 직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족이라는 말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함의가 다르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글에서 조향은 민족주의 민족전선 계열에서 말하는 농민과 노동인민만을 포함하는 민족 개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죽순』이 지향하는 민족의 개념이 분명해 진다. 물론 그 민족은 피를 나누고 살아온 삶의 터전과 삶의 양식을 공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죽순의 시론이 말하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진실, 영원성, 민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가지 핵심어는 서로 겹치기도 하는데, 요약하면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순수한 예술성과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강건한 민족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죽순』의 시와 서정시의 보루로서의 역할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¹⁰⁾ 『죽순』에는 시인 58명의 시 219편, 시조시인 5명의 시조 52편이 수록되어 있고, 이중 10편 이상 수록한 시인은 이운수 유치환 김동사 이웅창 김달진 이영도 이호우 등이며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시인으로는 김춘수 박목월 조향 조지훈 박두진 신동집 천상병 등

9) 조향, 『역사의 창조』, 『죽순』 6집, 1947.10. 7~9쪽.

10) 송영목, 『해방기 『죽순』지의 시세계』, 『비평문학』 7호, 한국비평문학회, 1993. 참조.

의 시인이 2편에서 6편 정도의 시를 싣고 있다.

그러나 앞에 이야기했듯이 김춘수 조지훈 박두진 조항 등은 『죽순』의 동인으로서의 활약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사람으로서 상호부조의 의미가 더 강해 보인다.¹¹⁾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죽순』의 동인으로서 연대의식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시인들의 시를 대상으로 죽순의 시세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들은 이운수 박목월 김동사이호우 이운창 이영도 등인데, 이들은 대부분 창간호부터 지속적으로 시를 발표하여 양적으로 많은 시를 발표하거나, 시론이나 문단소식 등 시이외의 산문을 발표한 경우에 속한다.

『죽순』은 해방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간행되었다. 이 시점에는 대부분의 시편들이 아직 해방의 들뜬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힘든 시점이며, 따라서 이 무렵의 시편들 역시 해방의 기쁨을 들뜬 목소리로 복사하기 바쁜 때였다. 『죽순』에도 해방을 노래한 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동인들이 생각하는 시의 본질적인 모습에 충실하려고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본질적인 모습은 순수서정시로서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현실에 대해 말할 때도 해방기 삶의 곤궁함에 대해 말할 뿐 서정시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歡喜의木馬를탄 얼굴 얼굴 만세를부른다 / 노래소리 만세소리 웃음소리가 흐른다
 설새없이 돌고도는목마 기쁨이돈다 / 허둥 지둥 歡喜에 기진하여 돌아온다
 머리칼이 새하얀 어머니가 밥상을 드러 놓는다 / 朴君도 金君도 모두들 와서 먹는다

11) 이런 현상은 다음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군소 시단들은 상호간에 수평적 연결이, 서울의 우파 문예단체들과는 수직적 연결이 도모되었다. 연결의 방법은 문예지의 상호 청탁, 필진 교환, 각종 행사의 참가, 단체 결성 시의 인적 자원 배분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시도되었다.” 박민규, 앞의 논문, 209쪽.

뱃길 천리 먼 마을서 온 李君도있다 / 北간도 별끝 핏기없이 돌아온 徐
君도 있다
하그리 시장함에 말없이 먹기만한다

모래 山에안자 밥을먹는다 / 山은 점 점 커진다
자꾸만 커진다 / 위로 위로 애써 오르라한다
오르면 오를수록 山은 높아진다 / 새로운江물이 山을 휘 휘 돌아흐른다
山뿌리는 속절없이 허무러진다 / 너두 나두 새로운江물에 휩쓸려 흘러
간다
소리쳐 불러봐도 바람만분다

바람소리에 문득 눈을뜬다 / 어둠에잡겨 버레가운다
뜰에 가락있만 덩구러 덩구러 돈다

- 이윤수, 『秋夜夢』¹²⁾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한 시도 드물다. 또 해방
기의 어려웠던 현실 상황을 이렇게 차분하고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시도 드물다.

1연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것인데, 너나 할 것 없이 편안하게 가족
과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연은 해방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앞에 인용한 글에서 이
윤수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시인의 최고의 과업이라고 했다. 이 시는
시인이 파악한 현실을 드러내는 방법에 있어서 『죽순』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현실의 인생’을 모든 것의 상위에 두고 ‘미를 탐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래산은 애초에 오를 수 없는 산
이고, 새로운 물결에 쉽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래산을 상징
으로 내세워 해방기의 현실들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물결은 앞의 시론
에서 살펴보았던 ‘시류’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3연에서 시적 화자의 서

12) 『죽순』 3집, 1946.12, 18쪽.

정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서정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소리에 눈을 뜨는 것, 또 눈을 떠야하는 것, 그래서 어둠에 잠겨우는 벌레와 뜰에서 뒹구는 가랑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시인의 전언이다

웃음이흐르고 / 슬픔이흐르고 / 그 흐름속에 오가는것이있기에
괴로움을 이 괴로움을 말없이 / 오늘도 너만 믿고 있음이니라

이렇게 오늘이가고 / 또 내일이 닳아옴을 / 달아래 지지귀는 까치모양
외로워드는 심사 / 하나

내가있음으로 내가있고 / 내가있음으로 네가있고
쫓으러드는 어둠에 안겨 / 비탈길을 갈지언정 / 한결 너만 믿고 있음이
니라

너만이알고 나만이아는 서림을안고 / 조개껍질 바람에우듯
이한밤 / 별빛따라 별빛따라
배달산이 그리워 가는길 / 정연코 산은
아직도 푸르를가 구름이흘러 / 九月山峯 해 솟어라 꽃피어라
풍년놀이 봄마지놀이 마음에재워 / 너와나는 믿고 있음이니라

- 이윤수, 『겨레』¹³⁾

이 시는 겨레에 대한 믿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끊임없이 겨레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겨레의 위기의식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겨레의 상황은 ‘괴로움, 외로워드는 심사, 쫓으러드는 어둠, 비탈길’에 반영되어 있다. 겨레는 수많은 ‘나’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에 육박해 있다. 그래서 ‘나’는 ‘너만 믿고’ 어둠 속의 비탈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연에서 보이는 ‘별빛, 해’ 등이 시적 화자가 희망하는 겨레의 모습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13) 『죽순』 3집, 1946.12, 4~5쪽.

있다. 그것은 곧 한 밤의 길을 밝혀주는 별빛이고, 구월산봉에 솟아오른 태양이다. 겨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핵심동인인 이호우의 시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호우는 『죽순』 제2집의 서시로 『맹서』를 싣고 있는데, 첫 연에 “이 땅에 받은 몸이 이 땅에 받히리라 / 겨레 날피시고 나는 겨레 앞에 / 한 가닥 마음 한길을 고침 없이 가리라”고 적고 있다. ‘날 피시고’라는 표현이나, ‘겨레 앞에 한 가닥 마음 한길을 고침 없이 가겠다’는 것은 그것이 거의 신성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어로서 겨레는 해방기 이후 새로운 국가의 주체로 호명된, 인민이나 민족, 시민 등의 용어와 함께 자주 쓰였다. ‘인민’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새로운 국가의 주체로서, 좌익 쪽에서 의도적이고 새롭게 사용한 개념이고, ‘민족’은 두루 사용하는 용어이나 좌익과 우익이 함의하는 내용이 다르다. 반면 시민과 겨레는 좌익의 용어에 대한 대타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이윤수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용어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단순한 구성인자의 집합으로서의 민족과 다른 것은 겨레라는 용어가 하나의 관념으로서 부분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죽순』은 이윤수의 역할이 지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박목월의 역할 또한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박목월은 창간호부터 시를 싣고 있고 2집에는 ‘목월시화’라는 글을 통해 문단 소식이나 시평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록과 3인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도 목월의 영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¹⁴⁾ 청록집의 발간일(1946년 6월)과 『죽순』의 발간일(1946년 5월 1일)이 크게 차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방 직후 목월의 활동양상을 엿볼 수 있다. 『죽순』이 지향하는 시적 세계는 한마디로 순수 서정시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월의 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4) 박목월은 창간호부터 이름을 싣고 있고, 박두진, 조지훈은 1947년 5월에 발간된 4집 이후에 이름을 싣고 있다.

골마다 / 松籟올다//
 松籟속에 / 산을 가며는//
 松籟속에 / 길이 터이어//
 冬至 선달 / 짧은 한나절//
 이내 오는 해거름 / 山이 저물고//
 松籟속에 / 추운 사슴이//
 松籟속에 / 골이 울다

- 박목월, 『松籟』¹⁵⁾

목월은 『죽순』 창간호부터 봄비 등의 시를 싣고 있는데, 해방기 목월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용한 시는 『죽순』 3집에 실린 시이다. 송뢰는 솔잎에 스치는 바람소리 정도로 이해된다. 송뢰 속의 추운 사슴에게 의탁된 화자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담겨 있는 시이다. 시적 주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연과 조응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서정시의 작법이지만, 『죽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청록집에서 보여준 목월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반복을 통한 특유의 리듬감이나 시 속의 풍경이 실제의 풍경인지, 관념 속의 풍경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묘, 자연 속에 그대만이 존재하는 듯한 진공의 공간 자체가 『청록집』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죽순』에 수록된 박목월 시의 서정성도 서정성이지만, 문체는 『죽순』에서 박목월의 역할이 단순히 『죽순』에 서정시를 게재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죽순』 동인들의 시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보인다는 것에 있다. 이 무렵 『죽순』의 분위기와 목월과 『죽순』의 인연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그(竹筍會대표 이윤수 시인:인용자)의 안내로 竹筍同人들과 사귀게

15) 『죽순』 3집, 1946.12.

되었다. 『문장』지 추천 시조시인 이호우 씨를 비롯하여 그분의 매씨 이영도 여사, 日大 예술과 출신 최해룡씨, 이승자, 오란숙씨 등 8~9명, 때로는 10여 명씩 모이곤 하였다. 때로 소설을 쓰는 김동사도 참석하였다. 첫 회합은 1946년 정월. 명금당(이윤수씨의 가게) 건너편에 있는 이씨 누님댁 2층에서 가졌다.

각자 작품을 들고 와서 서로 돌려가며 읽고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그런대로 그야말로 문우들의 모음답게 진지하고도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 밤 가는 줄 몰랐다.¹⁶⁾

인용문에 보이는 풍경은 영락없는 합평의 자리이다. 박목월을 중심으로 일종이 합평회를 열었던 것이고, 이 합평회는 제법 오래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정식으로 등단을 하지 않은 『죽순』 동인들에게 목월의 영향력을 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죽순』 동인의 시편에서 목월과 비슷한 풍의 시들이 발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천리 나그네스길
해는 저물어

산모퉁이 돌아돌아
꼬리는 幽谷
품속에... 洛東江
산스골이 외로워

茫茫한 물결에
벧사공 노래

들리는 듯 마는 듯 (애처러워)
눈물이 어리인
고기 잡이 불
노을에 잠겨서 떠나려가고

16) 박목월, 『조국 품에서 시를 쓰는 기쁨』, 『죽순』 복간호, 1979년 봄. 98쪽.

멀어 가는 視力(은)
어둠에 젖어

갈매기 노래(에)
외론 나그네

천리 낙동강
해는 저물어

- 백종택, 『저무는 강에서』 (괄호 인용자)

이 시는 목월의 영향력이 많이 드러나 있다. 인용시도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어 붙여서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다. 4연의 ‘애처러워’와 5연, 6연의 조사 ‘은’과 ‘에’를 빼고 읽는다면, 시의 리듬이나 어휘 운용에 있어서 목월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시의 분위기와 내용 역시 목월의 『나그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해가 저물 무렵 강가에 앉아 있는 나그네의 외로운 심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앞서 인용했던 목월의 말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의 합평 수준에서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신영의 『향수』, 이갑득의 『들에서』 등 몇몇 다른 동인의 시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운수나 박목월 외에 『죽순』의 핵심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호우이다. 이호우는 『문장』의 폐간 이후 낙향하여 일제말기를 고향에서 정미소, 만물상, 제재소 등을 경영하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고향의 가산을 정리하여 대구 대봉동으로 이사, 대구고등법원 재무과장, 직산인 문화극장의 사무극장을 지냄¹⁷⁾으로써 대구 지역과 연을 맺게 된다.

『죽순』의 특징 중의 하나가 시조의 활발한 게재에 있는데, 그 핵심에 이호우가 있다. 전체 수록시 219편의 시 중에서 학생투고시 포함하여 50

17) 박용찬, 『이호우 시조의 변모와 매체』, 『시조학논총』 32집, 2010, 46쪽.

편 이상이 시조에 할애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호우의 시조가 31편, 이영도의 시조가 15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호우나 이영도 모두 창간호부터 작품을 싣고 있고, 이호우의 경우 창간호부터 중간호까지 임시중간호를 포함하여 한 호도 빠지지 않고 작품을 싣고 있다. 이호우는 자신이 등단한 매체인 『문장』의 폐간 이후, 마땅히 작품을 발표하지 못하다가 해방 이후 『죽순』에서 자신의 시세계를 마음껏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죽순』에 수록된 이호우 시조의 특성은 시조의 현대성과 서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달 떴어 올린 돛을 갈바람 으로대고
밖앗 바다는 고래같은 놀이 편다
치 잡은 넓은 가슴에 안겨드는 아침빛

갯가에 매인 배들 한잠이 편타 말라
푸른 물 차고 가는 기쁨에야 비길 손가
님의 뜻 받자온 몸이 닳을 어서 감어라

한척 또 한척 청춘이 떠나간다
갈매기 나래우로 붉게 타는 아침노을
저 멀리 저 멀리 창공에 퍼져가는 뱃노래

- 이호우, 『出帆』¹⁸⁾

이 시조는 '8.15기념' 특집으로 만들어진 『죽순』 2집에 실린 시이다. 시에 등장하는 '님'과 '청춘'은 상징적이다. 시가 수록된 『죽순』 2집이 8.15기념호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목이 출범이라는 점에서 이 상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해방을 맞아 새로 시작하는 조국의 앞날에 대한 축시인 셈인데, 이로부터 님과 청춘을 조국과 그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읽

18) 『죽순』 2집, 1946.8, 25쪽.

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호우의 시조 중에서는 상당히 들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인데, 이러한 축시 같은 성격의 시에서도 이호우는 서정성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진달래 꽃사태 속을 돌돌돌 옥구르는 소리 / 제법 귀를 쫓긋 듣고 섰던 노루란 놈 / 열적게 경청 뛰달아 봄이 깜박 놀란다”(『산로일장』)같은 단시조는 자연에 의탁하는 방식으로서의 서정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김동사의 다음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보다 슬픈날 / 낮에 별이 보였습니다//
 두셋 등불이 / 그리운 날
 마음은 모진 /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모처럼 얻은 / 푸른 하늘을//
 모처럼 얻은 / 기꺼운 날을//
 두리 기둥 껴안고 / 가느른 허리 졸라매며//
 눈썹을 적시는 / 외로움이//
 오직 커가는 날이 있습니다

- 김동사, 『낮에 별이』¹⁹⁾

김동사는 『죽순』에 『민족의식과 문학』 등의 평문과 『향촌점묘』, 『회정』, 『바위의 꿈』, 『바다여 말하라』 등 10여 편의 시를 거의 매호마다 실고 있다. 소설가지만, 『죽순』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고, 시에도 그만큼 열정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시 역시 『죽순』의 시적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자연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서를 의탁하여 풀어내고 있다. 해방 이후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두리 기둥 껴안고 / 가느른 허리 졸라매며)에도 서정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순수 서정을 문학의 기본적인 가치로 내세우면서, 미를 추구하는 『죽순』의 이념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19) 『죽순』 3집, 1946.12, 24쪽.

4. 『죽순』의 지역성과 향토문학운동

이제, 『죽순』의 향토문학운동으로서의 지역성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의 지역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 현재까지 대구라는 지역은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다. 박용찬은 『출판매체를 통해 본 근대문학 공간의 형성과 대구』라는 논문에서 “1945-1953년까지의 대구는 지역과 중앙이란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던 유동적 공간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⁰⁾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지역은 한반도의 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서울의 대타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중앙이란 것은 대구가 영남의 중심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구가 “일제강점,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영남 지방 자원의 물적 집산지인 동시에 정신문화의 토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920년대 『여명』(1925)과 1930년대의 『동성』(1932), 『문원』(1937) 등의 문예 종합지와 『죽순』 등 대구지역의 출판매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 『죽순』은 발행인 이윤수 일인의 문학적 열정이 중요한 시발점을 이루고 있으나, 대구 출신의 이상화, 이장희, 백기만 등의 시적 전통은 물론, 잡지 매체로서 『여명』, 『동성』, 『문원』 등 대구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문학적 전통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구의 문학적 전통 속에 『죽순』을 위치시키는 것 역시 『죽순』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일 텐데, 그렇다고 『죽순』의 의미를 대구 지역에 한정시켜 볼 수는 없다.

해방기 지역문단은 대구 마산 진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들은 따로 또 같이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이 무렵 마산에서는 시동인지 『낭만파』가, 진주지역에서는 『등불』(후에 『영남문학』, 『영남』으로 개제함)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고, ‘이들 지역의 군소 시단들

20) 박용찬, 『출판매체를 통해 본 근대문학 공간의 형성과 대구-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5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35~60쪽.

은 상호간에 수평적 연결을, 서울의 문예단체들과는 수직적 연결을 도모²¹⁾하고 있었다. 실제로 조향, 김춘수 등 『낭만과』와 설창수, 이경순 등 『등불』의 시인들이 『죽순』에 시를 실은 것은 물론 오란숙, 이호우는 『낭만과』에, 이윤수, 이영도, 이승자, 김동사, 이호우 등 『죽순』의 시인들은 『등불』(『영남문학』)에도 작품을 발표하였다.²²⁾ 이렇듯 지역 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향토문학운동이야말로 『죽순』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였고, 그 방법의 하나가 인근 지역과의 연대, 중앙문단과의 교섭이었다. 그 일단으로서 『죽순』 3집에는 「시단소식」으로 ‘三南文學會’ 결성 소식을 알리고 있다. 간단한 문단소식이지만 이 소식에 전하는 바가 『죽순』의 지향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三南文學會結成

文學運動의 宗派的 傾向과 中央集中主義를 排擊하고 朝鮮民族文學樹立의 當面課題인 鄉土文學運動의 새로운 發展을 위하여 在南朝鮮文學人들은 지난 十月 二十五日 三南文學會를 結成하였는데 그 部署와 事務所는 다음과 같다.

위의 글에 나타난 바로서, ‘문학운동의 종파적 경향’을 벗어나는 것, ‘중앙집중주의를 배격’하는 것, 그리하여 ‘향토문학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죽순』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중앙집중주의를 배격’하자는 말은 ‘집중주의’를 배격하자는 것이지, ‘중앙’을 배격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중앙문단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 했던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아울러 청문협이 발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인들 중에 조지훈, 조연현, 김달진 등이 『죽순』의 필진에도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도 중앙문

21) 박민규, 앞의 논문, 209쪽.

22) 『등불』(『영남문학』)의 필진은 다음 논문의 부록에서 확인하였다. 문옥영, 「문예지 『영문(嶺文)』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단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문협의 활동과 『죽순』의 지향점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아야 한다. 청문협이 “다양한 잡지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문단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이념인 ‘순수문학’ 담론을 표방, 재생산하려고”²³⁾했고, 그래서 지역 문단의 매체로서 『죽순』이 필요했다면, 『죽순』의 입장에서는 청문협을 통해 ‘순수문학’을 공통적인 화두로 삼아 필진과 외연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다.

『죽순』과 청문협의 관계에 대해 박민규는 “『죽순』 동인들의 시적 이념은 청문협 시단을 자체적으로 따르려 한 데서 형성됐다”²⁴⁾고 판단하고 있다. 근거는 김동사의 시론이 청문협 소속의 조지훈의 순수시론을 그대로 재생했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청문협이 『죽순』을 지역 문단에서 자신들의 순수문학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정황도 보인다. 한국문학가협회(문협)가 결성되면서, ‘순수문학론의 문학적 권위와 정당성을 지속, 확산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이 이 시기 문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이나,²⁵⁾ ‘청문협의 핵심멤버들은 해방공간에서 문화적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²⁶⁾는 점에서 우익문단에서 이미 대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죽순』을 지역 사회의 한 거점으로 쓰기에 충분해 보인다. 매체 확보의 측면에서 보면, 『죽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박목월이 대구지역의 시사잡지인 『건국공론』에도 일정정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나²⁷⁾, 중앙문단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대구지역과 특별

23) 김준현, 『순수 문학과 잡지 매체-청년문학가협회 문인들의 매체 전략』,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61쪽.

24) 박민규, 앞의 논문, 213쪽.

25) 이봉범, 『해방10년, 보수주의문학의역사와 논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13쪽.

26) 위의 논문, 38쪽.

27) 『건국공론』은 대구에서 1945년 12월 25일 창간하여 1949년 11월 통권 28호를 내고 중단한 시사종합지이다. 이 논지에 대한 뒷받침 글로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한 연결고리가 없는 유치환, 김달진, 조연현 등이 원고를 싣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중앙 문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학권력과 관계한 과도한 논쟁과 경쟁은 오히려 『죽순』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윤수는 서울에서 문단에 발을 들이고 있는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편지의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 이를 테면, ‘이해상관이 없이 물고 뜻고 욕하는 것을 생리로 삼는 이런 곳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거나, ‘다방으로 빙빙 돌며 시비를 일삼는 몇 인물들이 있다’²⁸⁾는 것 등인데, 이것이 당시의 문단의 한 분위기이자,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비판은 같은 지역문단인 마산의 『낭만파』에 대한 청문협회의 경사가 한 원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이윤수는 ‘지극히 애정들이 없어진’ 중앙 시단에 대한 서운함 드러내기도 하였고²⁹⁾, 그 서운함이 반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의 출처를 떠나서 『죽순』은 중앙문단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초기에 보였던 나뭇대로의 순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토문학의 발전을 통한 중앙문단과 지역문단의 상호작용은 큰 틀에서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지점이지만, 지역문단은 늘 자생성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죽순』이 ‘추천제도, 일반투고, 학

있다. “『건국공론』은 비록 지방잡지였지만 ‘눈과 귀’는 언제나 서울에다 두고 격동하는 세계정세와 시대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편집했다, 그러면서 문학작품도 적잖이 실었다. 제3호(1946.3)에는 박목월의 명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로 애송되는 <나그네>가 탄생되었으니...(중략)목월은 친구 조상원(발행인, 전 현암사 회장-인용자)이 잡지에 열을 올리다가 힘에 부쳐 쓰러진 채 실의한 세월을 술로 달래는 것을 보았다. 그러던 차에 잡지를 속간한다니 너무 좋아서 이 한 편(『건국공론 속간하다』-인용자)을 지어 친구를 격려한 것이다. 이런 시를 받은 조상원이 어찌 힘이 솟고 용기가 나지 않았겠는가. 목월은 이때부터 『건국공론』에 깊이 관여한다.”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4, 451~452쪽 참조.

28) 『죽순』 8집, 1948.3, 12~14쪽 참조.

29) 이에 대해서는 박민규, 앞의 논문, 214쪽에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생투고를 통해 일반시단 학생시단 란까지 두어 명실상부한 대구, 경북지역 작가들의 발표매체로 자리 잡았다³⁰⁾는 것은 향토문학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죽순』처럼 지방에서 창간되어, 중앙문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논쟁의 여파에 크게 휩쓸릴 일 없이 자기의 문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지역문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5. 『죽순』의 의미와 한계

‘한국문학 연구의 축적이 반세기를 넘어서면서 보다 다양한 문학의 양상들, 즉 지방 문학과 군소 작가에 대한 연구 범위의 확대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문학의 지형도를 보다 명확하게 그리기 위함이며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³¹⁾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오히려 지방이어서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특수성을 부각하는 것이 전체의 큰 그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죽순』은 지방에서 간행된 동인지라는 점에서 하나의 특수성을 이룬다. 지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중앙의 논쟁, 즉 경향문학과 순수문학의 논쟁이나 모더니즘 문학 논쟁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 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선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이들이 순수서정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죽순』은 서정시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한 셈이다.

30) 박용찬, 앞의 논문, 47쪽.

31) 나민애, 『『맥』지와 함북 경성(鏡城)의 모더니즘』, 『한국시학연구』 41호, 2014, 240쪽.

『죽순』의 또 다른 의미는 대구지역의 향토문학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했다는 점이다. 박목월을 중심으로 청록파의 시인들과 유치진, 김춘수, 김달진, 이호우, 이영도, 천상병 등 문학사에서 손꼽힐만한 쟁쟁한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다는 점도 『죽순』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죽순』이 지닌 한계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사에 등장하는 유명 시인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으나 이들은 『죽순』의 동인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유치진은 통영과 중앙문단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했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박목월 역시 대구 시절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김춘수는 마산 『浪漫派』의 동인임을 강조한 바 있고³²⁾, 천상병은 정식으로 등단하기 이전, 『죽순』 중간호에 마산고보 학생시절에 쓴 시를 수록했다. 줄여 말하면 후대에 『죽순』의 동인으로 일컬어지는 몇몇 유명 문인들에게는 『죽순』의 동인의식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동인의식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동인지의 가치나 방향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인끼리 상호간의 연대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들 유명 시인들에게는 후자의 것이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유명 시인들의 명성이 후대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의 영향력이 단명으로 점철된 해방기의 동인지 세계에서 『죽순』이라는 동인지를 12집까지(임시중간호 포함) 발간하게 된 하나의 동력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죽순』이 대구문단에 끼친 영향 또한 절대적이었다. 『죽순』이 의미를 갖는 것은 끊임없이 지역문학 발전에 노력을 경주했고,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는 것이다. 중앙문단과의 길항적 의미에서 그리고 지역

32) “언젠가 『韓國文學』誌에서 나를 소개하면서 『竹筍』 출신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그건 아마 내가 그때 詩誌에 작품을 한두어번 실었던 연고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나는 마산에서 이미 조향, 김수돈 등과 『浪漫派』라는 동인지를 따로 내고 있었다.” 김춘수, 『鎬雨 潤守 兩李氏와 『죽순』』, 『죽순』 복간호, 107쪽.

문화의 자생적 활동에 있어서 향토문학운동의 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전문 동인지로서 『죽순』의 자생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마산의 『낭만파』가 청문협 등 중앙문단의 인적, 심정적인 지원 하에서도 4집으로 단명을 하였고, 진주의 『등불』은 진주시인협회라는 협회 차원의 문예지로, 시, 소설, 수필, 비평, 시론은 물론 희곡까지 수록한 종합 문예지였다. 반면에 『죽순』은 해방기 4년에 걸쳐 총 12집을 발간한 자생적 시전문 동인지라는 점에서 이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동인지가 갖는 의미로서 단순히 발표 지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이상의 것이 『죽순』에 있고, 이것이 해방기 명멸하는 동인지 문단에서 통권 12집을 발간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 아울러 폐간된 지 30년이 지난 1979년, 복간호를 낸 이후 지금까지 간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죽순』 영인본(1~10집), 죽순문학회, 2004.
- 『죽순』 복간호, 죽순문학회, 1979.
- 『죽순』 47집, 죽순문학회, 2013.
- 강호정, 「해방기 『죽순』과 대구라는 로컬리티」, 『유심』, 2014, 12.
- 김준현, 「순수 문학과 잡지 매체-청년문학가협회 문인들의 매체 전략」,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59~84쪽.
- 김춘식, 「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근대성」, 동국대대학원 박사논문, 2002.
- 나민애, 「『맥』지와 함북 경성(鏡城)의 모더니즘」, 『한국시학연구』 41호, 2014, 207~246쪽.
- 문옥영, 「문예지 『영문(嶺文)』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 민현기, 「대구 지역 문학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그 활성화 방법 연구」, 『어문학』 제80집, 어문학회, 2003, 265~290쪽.
- 박민규, 「해방기 시론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논문, 2012.
- 박용찬, 「이호우 시조의 변모와 매체」, 『시조학논총』 32집, 2010, 35~60쪽.
- 박용찬, 「출판매체를 통해 본 근대문학 공간의 형성과 대구 -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5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35~60쪽.
- 송영목, 「해방기 『죽순』지의 시세계」, 『비평문학』 7호, 한국비평문학회, 1993, 102~127쪽.
- 오문석, 「1920년대 초반 동인지에 나타난 예술이론 연구」, 상허학회, 『1920년대 동인지 문학과 근대성 연구』, 깊은샘, 2000.
- 이봉범, 「해방10년, 보수주의문학의역사와 논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0.

이성희, 「김춘수 초기시 연구-해방직후 동인지 『낭만파』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2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515~540쪽.

이순욱, 「광복기 경남 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
시집 『날개』」, 비평문학 제43집, 한국비평문학회, 2012, 189~
226쪽.

이은정, 「시인부락의 모색과 도정」, 상허문학회, 『1930년대 후반문학의
근대성과 자기성찰』, 깊은샘, 1998.

차혜영, 「1920년대 동인지 문학운동과 미 이데올로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199~222쪽.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4, 448~454쪽.

한정호, 「김춘수의 초창기 문학살이 연구-마산의 지역문학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26집, 2013, 197~234쪽.

<Abstract>

Study on 『Jook-soon(Bamboo shoot)』 that is
a literary coterie magazine in the liberation
period

Kang, Ho-jung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poetic worlds of 『Jook-soon(Bamboo shoot)』 in the liberation period and to comprehend its role in revealing the locality of Daegu, with its limit and modern meanings, through poetics and poems contained in 『Jook-soon(Bamboo shoot)』.

『Jook-soon(Bamboo shoot)』, the first literary coterie magazine in the liberation period, was published in Daegu, on May. 1st, 1946, by Jook-soon Poets Club as a publisher. Since then 12 magazines including an extra edition were published until the cessation of publication with 11th issue on July of 1949. Even though 『Jook-soon(Bamboo shoot)』 clarified pointing the activity of literary coterie as a club by clearly designating Jook-soon Poets Club as its publisher, actual managements such as financial support, editing, and mailing were lead by a poet Lee Yoon-soo. 『Jook-soon(Bamboo shoot)』 was reissued in 1979,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and has been continuously published until now.

The appearance of 『Jook-soon(Bamboo shoot)』 in the liberation period has following features: 1. 『Jook-soon(Bamboo shoot)』 started as literary coterie magazine and tried to establish status as pure literary magazine, 2. 『Jook-soon(Bamboo shoot)』 published the poems

of well-known poets who appeared in literary history, but it worked double-edged sword. 3. 『Jook-soon(Bamboo shoot)』 took a profound interest in shijo literature even though it was caused by the special cases of Lee Ho-woo and Lee Young-do. 4. 『Jook-soon (Bamboo shoot)』 was spearheading ‘a local literary movement’ as a representative literary coterie magazine in Daegu. In this connection, it is impossible to ignore its relation with ‘Joseon Youth Literary Association.’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oterie awareness of 『Jook-soon (Bamboo shoot)』 members through poetics contained in 『Jook-soon (Bamboo shoot)』 and to examine their poems based on those poetics. The object of investigation was decided to be poets who showed pure enthusiasm as members of 『Jook-soon(Bamboo shoot)』 rather than famous poets such as Kim Choon-soo and Yoo Chi-hwan who seemed to lack coterie awareness even though their poems were contained in 『Jook-soon(Bamboo shoot)』.

Key Words : 『Jook-soon(Bamboo shoot)』, the locality of Daegu,
literary coterie magazine, liberation period, Jook-soon
Club

■ 논문접수 : 2015년 3월 23일

■ 심사완료 : 2015년 4월 14일

■ 게재 확정 : 2015년 4월 20일